www.gopacom.com
www.pacomprinting.com

# Pamily

2019 1월~3월 vol.24

마다나! 신미경 과장

## 백팩은 팩컴의 사랑을 싣고

피플 - 문순희 사원

MANROLAND 인쇄기

Pamily
Pacom Family

# 名品印刷

**명품 인쇄**를 추구하는
**팩컴코리아**

ONE STOP TOTAL PRINTING SERVICE

All About Printing

## 루이비통이 팩컴을 선택한 이유는?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팩컴코리아는
Prepress · POD · 후가공 등 인쇄 전분야에서 최고의 설비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매년 2,000만불 이상의 수출을 해온 경험과 최고의 품질,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사의 인쇄물을 팩컴에 맡겨주시면
고객만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Pacom
Pacom AAP
Book make

문의 031-718-3666 www.gopacom.com | www.pacomprinting.com |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vol.24
2019 January. February. March

Pacom Family Pamily

# CONTENTS

02 신년사
06 인터뷰 해외영업부 – 신미경 과장
07 신년운세 2019 띠별 신년운세
08 기쁨나눔 백팩은 팩컴의 사랑을 싣고
10 이모저모 화담숲 속 팩컴 – 사진 콘테스트
11 피플 B&F사업본부 – 문순희 사원
12 인쇄이야기 MANROLAND 인쇄기
14 북페어 2018 과달라하라 북페어
16 공감 개띠 해를 보내면서
17 건강튼튼 겨울철 감기 예방법
18 공감 독백
19 상식톡톡 2019년 달라지는 법
20 북리뷰 돌이킬 수 없는 약속
21 꿀팁창고 카페인 중독 자가진단
22 찰칵소리
24 팩컴뉴스

발행처 팩컴코리아 | 발행일 2019년 1월 1일 | 발행인 김경수 | 편집장 황철원 | 기자 이원성 박미선 유공심 봉원미 김은영 박다솜 | 교정 · 교열 배수민 | 디자인 정세미 | 인쇄 팩컴 POD

# 김경수 대표이사님 신년사

아! 나는 그 해 겨울, 아주 우연히 마주친 장엄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대 서사시를 잊을 수가 없다. 그 순간 이후 나와 우리 가족의 버킷 리스트에는 다시 한 번 그 황홀한 순간을 경험할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 올라가 있다.

아마 1994년 말쯤이었던 것 같다. 미국 생활이 아직 익숙지 않았고 바쁜 탓에 여행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교회에 다니다 친해진 한 교우의 가족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Yosemite 국립공원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고 늦은 가을에서 이른 겨울 사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기에 그렇게 많은 첫 눈이 내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산장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이튿날 아침,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설국이 펼쳐져 있었다. 문 앞에 세워둔 자동차가 눈에 파묻혀 사라질 만큼 밤새 많은 눈이 내린 것이었다.

장관으로 펼쳐진 설산의 아름다움을 지금도 잊을 수 없지만 하산 시 경험했던, 미국이란 위대한 국가가 만들어진 비밀 한 자락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감동적인 기억 역시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엄청난 첫 눈에 귀가하는 산길은 어둡고 미끄러워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 질 수밖에 없었다. 빙판으로 변한 길에 모두 조심조심 거북이 운전… 아뿔싸! 와중에 우리 차는 미끄러운 길을 이기지 못 하고 기울어진 도로의 갓길 도랑으로 빠지고 말았다. 뒤를 따르는 차량들 속 사람들의 급한 마음은 어렵지 않게 추측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어떤 도움을 기대하지도 못 했고, 요즘처럼 휴대폰이 일반화 되었던 때도 아니어서 상황을 어디에 급하게 알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그런데 감동은 바로 그 때부터였다.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까지 두 시간이 좀 안 되는 정도로 기억된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 없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감동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미국이라는 초 일류 국가의 위대함이 단지 막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비단 한 두 사람만이 아니었다. 갈 길이 멀어 바쁘게 재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위험에 빠진 이방인 가족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이다. 내가 빠진 차를 꺼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할 때까지도 본인들의 차에 로프를 매어 우리 차를 꺼내 주려 애쓴 사람들의 선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들 중에서는 심지어 여성들도 있었는데, 차가운 도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누워서 자신의 트럭에다 내 차를 로프로 묶어 꺼내 주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다행히도 어떤 신사 분이 소위 벽돌 폰이라고 알려진 초기의 모토로라 휴대폰으로 신고를 해준 덕분에 무사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감동은 한민족이라는, 물보다도 진한 피로 연결되었다는 우리 동포들에게서도 쉽사리 경험해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결코 아니었다. 바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힘의 원천을 몸으로 직접 체험한 것이었다.

감동의 계곡 길을 벗어나 큰 도로로 진입하자, 자동차에 감았던 체인이 끊어져서인지 차체에 심하게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부딪히는 소음이 들려왔다. 확인을 위해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어둠이 와야 비로소 어둠조차 가릴 수 없는 참 빛이 드러나는 것이라 했던가? 우연히 바라본 투명한 하늘 위에는 수억의 별들이 뿌려져 대 서사시를 쓰고 있었다. 위대한 신의 시를 또다시 선물 받은 밤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밤을 또 한 번 경험해보고 싶은 소원을 품게 된 것이다.

우리를 정말 많이 힘들게 했던 2018년이 빛의 속도로 우리 곁을 지나서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 2019년 기해년! 복을 부른다는 돼지의 해가 우리에게 왔건만 정말 복을 몰고 올 것인지, 기대보다는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5년 전의 감동을 상기해 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감동의 순간이자, 신의 위대한 시이자, 희망의 순간은 모든 것을 가릴 어둠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라고 믿고 싶다.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욥기 11:18-19)**

희망을 잃지 않는 새해가 되기를 …

# 최숙 대표님 신년사

신이 우리에게 선물한 큰 축복 중 하나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해를 잘 보낸 분들도, 지난 해를 잊고 싶어 어서 가길 바랬던 분들도 묵은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해가 어떠셨는지요?

새로이 시작하는 한 해는 우리에게 설렘과 더불어 다시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줍니다.

흔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들 하죠. 새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희망도 시간이 지나면 매일 먹는 밥처럼 그냥 그렇게 흘려 보낼까봐서, 선인들은 그 한 해의 시간을 열 두 달로 나누고, 한 달을 평균 30일로 나누고,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 부지런하게 정리해 가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루가 제일 길고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10년. 시간의 단위가 클수록 지나고 보면 참 짧게 느껴지고, 우리가 생을 마치는 평생은 눈 깜짝할 사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꾸로 가장 짧은 평생을 풀어 가며, 지나간 과거는 어찌할 수 없어도 새로이 시작하는 새해는 길게 느낄 수 있게끔 참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길게 느끼며 사는 건 무엇일까요? 온전히 내 시간을 계획하며 사는 게 아닐까요? 좀 더 부지런하게, 좀 더 계획해 가며 내 삶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 처음 시간에 오늘 할 일을 알고, 내 시간을 기획하며 온전한 시간을 쓰기 위한 스스로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새해 우리 모두 열심히 살며 건강하고, 복도 받고 복도 짓는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 김홍규 상무님 신년사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가 저물고,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는 출발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팩컴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사장님과 모든 임직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나쁘리란 전망이 대세입니다. 밖으로는 미 · 중 무역 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안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침체가 뇌관이 될 지도 모르고,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에 따른 공급 과잉이 상시화 되어 성장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은 팩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한 해로써, 금년 전 부서가 계획했던 사항을 합심하여 달성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올 기해년은 뜻 깊게도 황금 돼지의 해입니다. 돼지는 예부터 행운과 재복을 상징하는 동물인데다가, 황금 역시 재물의 대명사입니다. 팩컴 가족들의 꿈과 기대를 이루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가정에도 언제나 웃음과 건강이 깃드시고, 소중한 하루하루를 넉넉함으로 채워 나가시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 己亥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회사가 창립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물론이거니와 직원 여러분 모두가 소원 성취하고, 좀 더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소망을 이루고 한 단계 앞서 나아가려면, 그저 꿈만 꾸고 생각만 가져서야 안 되겠지요. 철저한 자기반성과 현상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을 세워,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실천 행동을 해야 되겠지요.

돌이켜보면 힘들지 않았던 해가 있었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전 직원의 정성과 땀이 있었기에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내고, 지금까지 회사가 잘 유지 · 발전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험난하고 힘든 시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늘 그랬듯 또 다시 전부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안산공장이 군포로 이전 및 통합되면서 인원과 설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소의 시행착오와 어려움은 있었지만 무사히 안착하였으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코스트와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도 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팩컴AAP의 3대 목표인 원가 절감과 코스트 DOWN, 생산성과 효율성 UP, 품질 향상과 사고 근절을 위해 매진해야 됩니다. 이제는 확실한 성과를 위해 좀 더 과학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목표를 실행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장님께서 천명하신 '패러다임의 전환', 즉 '우리의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전 부문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생산에서는 POP의 정확한 입력, 매일 업무 시작 시 목표 개념과 종료 시 마감 개념, 프로젝트 종료 후 리뷰 분석을 철저히 실행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우리 함께 해 나갑시다. 저도 패러다임의 전환에 앞장 서서 모든 걸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관리하며, 직원들의 氣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조성길 상무님 신년사

# "마다나! 가을날 뭐하나?"

뜬금없는 황철원 본부장님의 전화로 다시 시작되었다는 그녀와 팩컴의 인연.
그 인연의 시작에서, 신미경 과장님의 과거와 현재를 살짝 들여다 보고 싶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Q 꽤 오랜 공백을 깨고 복직하셨는데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 큰 아이 출산 후 아이의 건강 문제로 복직을 하지 못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전업주부가 되었고, 자신의 한계를 매일 같이 마주하게 됐지요. 불안감에 한없이 낮아지는 자존감을 경험하는 시기였지만, 네 살 터울의 둘째를 낳고 키우면서 육아에 대한 작은 행복도 느끼고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안정감을 느끼며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Q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갑작스런 본부장님의 연락에 당황하셨겠어요?**

: 사실 이 나이에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고마운 일이란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Q 쉬는 동안 팩컴을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났나요?**

: 지나고 나면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은 퇴색되고, 좋았고 즐거웠던 기억은 더 또렷해 지는 것 같습니다. 좋았던 시절을 함께 공유했기에 이곳이 단순한 직장의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주죠. 팩컴의 모든 분들에게 학교 선후배와도 같은 유대감이 느껴지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Q 팩컴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나요.?**

: 보스턴에 계시는 윤성식 사장님이 많이 생각 났어요. 저를 힘들게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인정도 해 주셨고, 한 마디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사이지요. 저의 오랜 상사이시지만 늘 삼촌 같았던 김상광 부장님, 바이어 시어슨 크레이그 씨도 종종 생각나곤 했었어요.

**Q 복귀하고 보니, 회사의 어떤 점이 달라졌던가요?**

: 기계나 설비는 당연히 10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 그에 비해 일하는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저한테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네요.

**Q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답니다. 직원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요. 단지 일의 속도가 아직은 느린데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어깨나 목이 많이 아프네요. 이건 뭐 나이 탓일 지도… 만나는 분마다 잘 되어 가냐, 할 만 하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그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 지 머뭇거리게 되네요. 현재 시점으로써는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내심 마음 한 켠이 불안해요.

**Q 다시 일을 시작할 때 다짐한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과장님의 마음가짐 한 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일을 아주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묵묵히 그리고 천천히, 제 자리에서 할 일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집안 일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아이들에 관해서도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중이예요. "너무 잘 하려고만 하지 말자!" 결국 이게 제 다짐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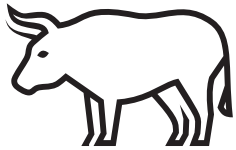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다시 만난 팩컴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민폐나 끼치지 않을지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웃음)

여기까지 다시 돌아 온 그녀, 신미경 과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멋지게 살아 온 신미경 과장님! 다시 시작하는 팩컴에서 천천히 단단하게, 더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저희 패밀리가 응원합니다. P 봉원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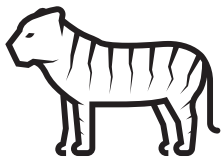
**96 · 84 · 72 · 60 · 48년생**

작은 일이 모여 평온이 찾아오게 됩니다. 도와주는 귀인이 있으니 길함이 있을 것이며, 힘든 일에 의연한 대처가 필요한 한 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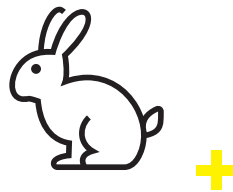
**97 · 85 · 73 · 61 · 49년생**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게 좋은 해입니다. 시비나 구설수를 조심하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운이 좋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 길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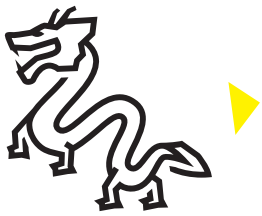
**98 · 86 · 84 · 62 · 50년생**

집안에 경사나 승진 등 변동운이 있습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99 · 87 · 75 · 63 · 51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이익이 따릅니다. 그로 인해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니 열심히 하는 것이 좋고, 잦은 이동은 좋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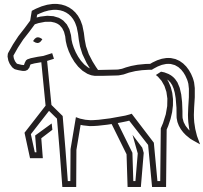


**88 · 76 · 64 · 52 · 40년생**

적극적으로 행하면 좋은 한 해입니다. 그러나 사업과 거래 등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은 좋으나, 지출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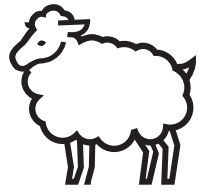
**89 · 77 · 65 · 53 · 41년생**

금전과 재물이 몰려오는 해입니다. 하지만 시비나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며, 다소 수심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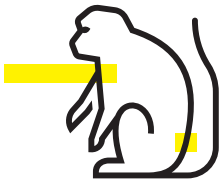
**90 · 78 · 66 · 54 · 42년생**

전체적으로 운수가 좋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릴 것이며,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다만, 지나친 자신감은 좋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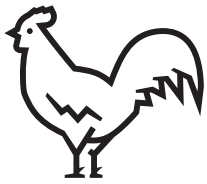
**91 · 79 · 67 · 55 · 43년생**

매사가 순조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건강 운만 조심한다면 새로운 도전을 펼치기에도 길하며, 무난하게 흘러가는 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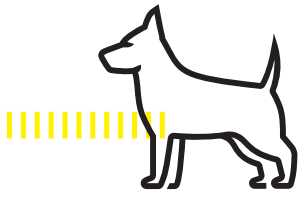
**92 · 80 · 68 · 56 · 44년생**

극심한 어려움은 없는 한 해입니다. 하는 일에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며, 새롭게 추진하기도 좋습니다. 과욕을 부리기보다 마음을 다스리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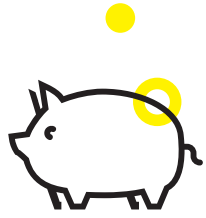
**93 · 81 · 69 · 57 · 45년생**

덕을 쌓으며 때를 기다리는 편이 길합니다.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엔 불리한 해입니다.



**94 · 82 · 70 · 58 · 46년생**

인내를 가지고 극복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 동안의 성실한 태도로 인해 뜻밖의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건강 관리에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95 · 83 · 71 · 59 · 47년생**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운입니다. 또 서로 믿고 의지하는 인연이 있다는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지나친 지출을 조심해야 합니다.

# 2019 띠별 신년 운세!

박미선

다가온 2019년, **황금돼지의 해**에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해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띠별 신년 운세를 준비해 봤습니다.

HAPPY NEW YEAR

길마다 야자수 나무들이 장관을 이루는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
마다가스카르 빈곤층 유치원 아이들의 모습

# 백팩은 팩컴의 사랑을 싣고

지난 2018년 5월 15일, 굿피플에서 팩컴의 영유아용 백팩 1만 개 기부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후 팩컴의 인도주의적 사랑으로 전달된 1만 개의 가방은 각각 국내 미혼모가족협회, 광주고려인마을, 다문화센터 등 저소득 계층에, 또 마다가스카르의 학교들과 인도 뉴델리의 저소득층 공부방에 무사히 전달되었다.

그 중 해외에서 가방을 받은 아이들의 사진이 전해져 왔기에, 이번 기회에 그 소식을 나누고자 한다.

마다가스카르는 1인당 국민 소득이 400달러 미만인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 막대한 지하 자원을 가졌지만 두 번에 걸친 군사 쿠데타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은 황폐해지고,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인도 빈곤층 공부방의 아이들의 모습

거리에 짙은 어둠이 내리면 갈 곳이 없어 거리로 내몰린 어린 아이들이 악취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뒤적거리며 고단한 하루의 허기를 달랜다. 누구에게도 보호 받지 못한 채 작은 고사리 손으로 주린 배를 채우는 아이들, 배고픔에 지쳐 아무데서나 잠들어버린 소년 소녀들, 모두가 안전한 쉼터와 보호자도 없이 위험한 거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학교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놀이터이자, 배움터이자, 쉼터가 되어주는 가장 좋은 친구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급식을 먹고, 글자를 배우고, 꿈을 키워 가면서 구걸하는 생활을 멈출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 팩컴이 이번에 기부한, 메이지 생쥐 캐릭터가 그려진 화사한 가방은 아이들에게 더 큰 꿈을 꾸며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것이다.

백팩 가방이 전달된 또 다른 나라인 인도의 수도 뉴델리 거리에서 생활하는 어린 아이들의 숫자는 10만 명 이상이며, 일상적인 배고픔과 가난은 사실상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고통이다. 아이들은 학교에 오기보다는 주로 거리에서 살며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하며 자라나고 있다.

굿피플과 같은 NGO 단체들이 공부방과 직업훈련센터를 통해 인도 어린이들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채우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번에 팩컴의 알록달록한 백팩 가방이 단체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이런 아이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희소식이다.

이 가방이 어떻게 먼 나라의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지 작은 의문을 가졌던 기자는 아이들의 밝게 웃는 얼굴을 사진으로 접하고선 마음이 뭉클하고 따뜻해졌다. 나눌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커지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훈훈한 기부 행렬이 팩컴에서 앞으로도 죽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봉원미

화담숲 속 팩컴

#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영광의 1위!
관리부

2위!
중철팀

3위!
무선팀

P E O P L E

팩컴AAP
B&F 사업본부

**문/순/희** 사원

## 우리들의 영원한 젊은 언니이자 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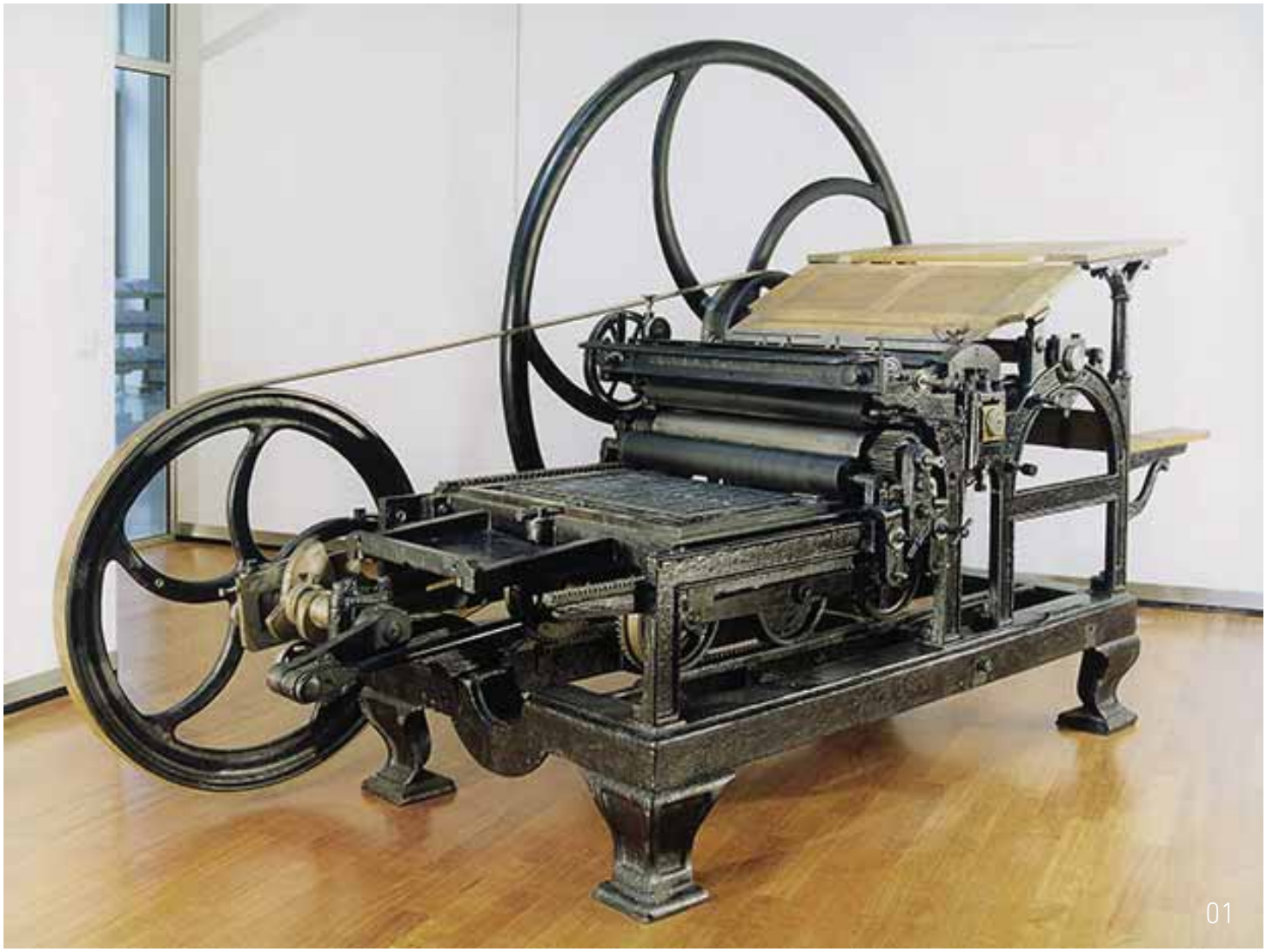
그녀의 하루는 매일 아주 이른 새벽 4시부터 시작된다. 묵은 집안 일들은 출근 전에 대강 정리해 두고, 두 귀염둥이 밍키와 쵸코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부터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기에 그야말로 24시간이 모자란 것이다. 아침 집안일 일과가 끝나도 5시 30분, 일찌감치 그녀는 마포에서 멀리 이곳 군포까지 출근한다. 자그마치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려 회사에 도착해도 7시. 일터인 B&F 사업부에 도착해서 미리미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고 현풍이에게 깨끗한 물을 갈아주는 것과 밥을 챙겨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자질구레한 많은 일들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나서야 커피를 한 잔 하면서 비로소 하루를 여는 셈이다.

이전 안산공장에서 근무할 때부터 그녀의 지극한 동물 사랑은 유명했다. 현풍이의 엄마인 개 캘리가 그만 눈병이 났던 것을 매일매일 닦아주고, 꼬박 항생제를 먹여 병을 낫게 해 주었던 것도 그렇거니와 안산공장에서 살던 많은 강아지들을 다 돌보셨던 분이다. 선한 마음으로 궂은 일에는 언제나 말 없이 솔선수범 하시는 데다 부지런하고 깔끔해서 그녀의 주위는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내리사랑도 극진하여 손녀가 자주 자주 놀러 온다고.

이런 심성은 직장에서도 티가 나는지라 여직원들은 그녀를 부를 때 여전히 친근하게 "언니" 라고 부른다. 물론 젊은 남자 직원들 역시도 그녀를 "순희 누나" 라고 부른다. 흔히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젊으면 그 사람을 젊다고들 한다. 육신 혹은 마음. 순희 언니 혹은 순희 누나는 마음이 따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젊기 때문에 언제나 모두의 언니이자 누나인 것이리라.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순희 언니를 좋아하고, 그녀 주위에 있으면 기분이 좋다고들 한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덕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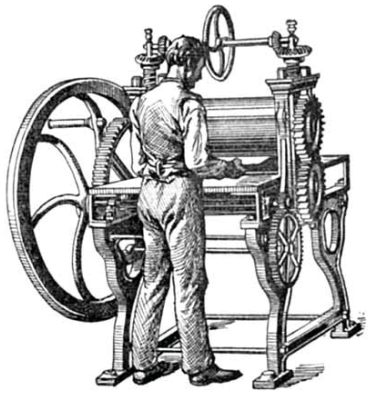
회사에서 크던 밍키는 그녀의 집으로 가 그녀의 사랑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말썽쟁이 밍키의 까만 눈동자를 사진으로 보여 주시며 연신 "얼마나 예쁜데…" 라고 자랑하시는 모습이 영락없는 딸 바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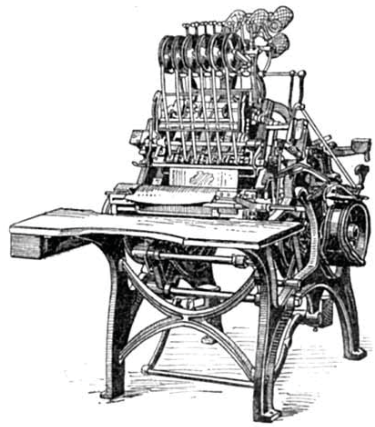
우리의 영원한 젊은 순희 언니! 언제나 건강하시고 우리 곁에 오래오래 계셔 주세요! 황철원



**01** 1845 만로랜드의 첫번째 평판인쇄기
**02** 팩컴 로비 1층에 위치한 인쇄기 | **03** 팩컴 매엽 5호기 | **04** 팩컴 매엽 7호기
**05** 팩컴 매엽 8호기

1900년대 인쇄기 사용 모습 ▶





# manroland 인쇄기

지난 팩컴 창립 19주년 기념일 이후, 회사 건물 1층 로비를 장식하고 있는 오래된 인쇄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인쇄기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MANROLAND 인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01. MANROLAND?

1871년에 독일에서 설립된 만로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옵셋 석판 인쇄기 제조사 중의 하나이며 20세기와 21세기 초 전반에 걸쳐 인쇄업계의 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 회사는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호주를 포함하여 40개 국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상업용 포장 및 출판 응용 분야에서 시트 인쇄 옵셋 인쇄기 및 관련 기술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선도 기업입니다.

## 02. 현재 팩컴이 사용하고 있는 MANROLAND 장비

- ROLAND 700 (인쇄사업본부 매엽 5호기)
- ROLAND 706 6색 옵셋인쇄기 (인쇄사업본부 매엽 7호기)
- ROLAND R705 (인쇄사업본부 매엽 8호기)

## 03. 팩컴 1층 로비 오래된 인쇄기의 유래

만로랜드의 오래된 인쇄기는 1909년 독일 중부 헤센 주 라인 강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가이젠하임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쇄기입니다. 가이젠하임은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인쇄 전문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쇄와 관련이 깊은 지역입니다. 현재는 안타깝게도 모든 시설을 독일의 유명한 공업 도시인 오펜바흐로 옮기고, 가이젠하임 공장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쇄기는 당시 꽃 피기 시작했던 인쇄산업의 증거로써 아직 남아 있습니다.

## 04. 팩컴 창사 19주년 기념 기증

올해로 110년 된 이 오래된 인쇄기는, 팩컴 창사 19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MANROLAND에서 팩컴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선

01

02

# 2018 Guadalajara Book Fair !

[ 해외영업부에서 20대의 젊은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전민아 사원과
2018 과달라하라 국제 도서전 Guadalajara Book Fair
참관에 대해 간단하게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

**Q. 과달라하라 국제 도서전은 어떤 도서전인지 소개해주세요.**

**A.**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 다음 가는, 세계에서 2번째로 규모가 큰 국제 도서전입니다. 이 도서전은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대학에서 1987년에 창립되어 32년 째 매해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개최되고 있는데요, 방문객과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70만 명 이상이 활발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한국에서는 혹시 우리 팩컴 외에도 다른 회사들이 참가를 하였나요?**

**A.** 대한인쇄문화협회의 주관 하 청아, 금강도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다 같은 공동 부스를 사용하였습니다.

**Q. 저희 부스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이나 방문객들 반응은 어땠나요?**

03

04

05

06

**01 02** 과달라하라 북쇼장 입구
**03** 팩컴 부스 안에서 한 컷
**04** 점심 식사 후 김철성 부장님과 셀카!
**05** Domestic관 내부의 많은 인파
**06** 과달라하라 로고 조형물 앞

**A.** 과달라하라 국제 도서전이 다른 도서전과 다른 점은, 처음 이틀 동안은 일반 방문객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이후로는 Business를 목표로 Book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방문객들, 특히 젊은 학생들에게 저희 부스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 중 주된 이유는 저희 부스에 비치되어 있던 BTS 관련 책자들 때문이었습니다. BTS라는 단어만 보고도 환호하고 좋아하는 그들의 대단한 열기에 저도 모르게 으쓱해졌습니다 ^^.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도 상당히 올라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오히려 저를 상대로 본인들이 인터뷰 하고 사진요청을 하는 웃지 못 할 헤프닝도 많았으니까요.

Business Day 기간동안에는 남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예년에 비해 참여율이 좀 저조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김철성 부장님과 함께 부스 방문객뿐만 아니라 부스를 지나쳐가는 Publisher, 또는 다른 출판 관련 부스를 직접 찾아가 저희 팩컴과 팩컴 제품에 대해 설명하며 마지막 날까지 많은 미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선 중 하나인 Novelty와도 만나 식사도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Q. 과달라하라 국제 도서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하였나요?**

**A.** 분위기는 그야말로 '남미답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전체적으로 밝고 신나는 분위기였어요. 이곳 저곳에서 흥겨운 노래들이 흘러나왔고, 곳곳에서 연극, 영화, 음악,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무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 축제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곳이었어요.

**Q. 바쁜 일정들을 잘 소화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출장에 대한 마무리 소감 부탁드립니다.**

**A.** 멕시코에 도착한 날과 멕시코를 떠나는 날 모두 남미 특유의 화창한 날씨였던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가 만난 많은 고객들과의 인연이 그 화창한 날씨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고객 유치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새삼 느낄 수 있었기에, 현재의 고객들에게도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 유지에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답니다.

**바쁜 시간을 속에서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준 전민아 사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유공심

ADIEW 2018 — HELLO 2019

## 개띠 해를 보내면서

이번 무술년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다. 과연 올 한 해 열심히 잘 살아 왔는지, 혹시나 개처럼 살지나 않았는지,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하는 것인데 혹여나 꼬리가 개를 흔드는 모양새는 아니었는지,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낸 건지 잠시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가진다. 돌이켜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봄날에는 안산공장 직원들이 군포로 이사를 와서 한 식구가 되었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에는 해외 캘린더를 미리부터 생산해 내느라 열심히 구슬땀을 흘렸으며, 가을에는 직원들 모두가 화담숲에서 아름다운 계절 풍광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또 가을날에는 슬픈 일도 있었다. 한 식구였던 유르겐 굿자이트 씨가 건강 이상으로 먼저 떠난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는 그가 남긴 교훈을 잊지 말고, 더욱 더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야 하겠다. 이래 저래 바쁘고 정신 없이 살아 올해도 어느덧 끝물,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가는 개띠 해를 잘 보내줄 일이다.

## 돼지 해를 맞으면서

돼지는 우리보다 못 생겨서 어쩐지 편하고 친근하다. 어디 그 뿐인가. 우리보다 뚱뚱해서 상대적으로 기분이 좋다. 2019년은 기해(己亥)년, 10개의 천간 중 기(己)는 노란색에 해당하므로 돼지해 중에서도 길운(吉運)이 찾아 온다는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한다. 아마 2007년도에도 황금 돼지의 해라면서 출산 열풍이 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는 정해(丁亥)년이었는데 정(丁)은 음이자 화(火)에 해당하므로 그 해는 사실상 붉은 돼지의 해였다. 한 풍수학 박사의 말에 따르면 "중국 고전명리학의 학설인 납음오행(納音五行)에 기초하여 정해년을 옥상토(屋上土)로 여기며, 이에 황금돼지해로 부른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2007년이 황금 돼지의 해로 알려졌었지만, 정확히는 2019년이 정말 진짜배기 황금 돼지의 해인 것이다. 재물이 넘치고 큰 복이 온다는 황금 돼지의 해이니 만큼,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거나 낮은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황금 돼지면 어떻고 그냥 돼지면 어떠리. 돼지처럼 근심 없이,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아프지 말고, 또 항상 꿀꿀거리는 돼지처럼 즐겁게 살면 돼지 같은 푸짐한 복이 찾아 올 것이다. 육신의 건강도 챙기면서, 정신 건강을 위해 책도 많이 읽을 일이다. P황철원

# 겨울철 **감기** 예방법

가벼운 생활형 질병으로 인식되는 감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급성 질환 중 하나로, 그 치료 또한 다른 질병에 비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200여 종 이상이며, 이 때문에 사실 완전한 감기 치료제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로운 질병이라고 한다. 연일 추운 날씨 탓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요즘 더 걸리기 쉬운, 감기의 예방법 6가지를 소개한다. 박다솜

01

**손 씻기는 기본!** 감기 예방의 기본 중 기본은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다. 감기는 대부분 손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매일 만지는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키보드 등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세균이 많기 때문에 손은 자주 씻어 주는 것이 좋다.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30초간 손을 씻고 특히 손톱 밑에 세균이 많이 기생하므로 손톱과 손톱 밑을 주의해서 씻어야 한다.

02

**39~43℃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은 체내 혈액순환을 촉진해 체온을 높여준다. 특히 몸이 으스스하고 콧물이 나올 때, 족욕으로 땀을 빼면 감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노폐물 배출을 통한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

03

날씨가 춥다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근다면 환기가 되지 않아 오히려 감기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한 상태가 된다. **춥더라도 하루 3회 정도, 낮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사무실이나 교실과 같은 공간일수록 자주 환기하는 것이 좋다.

04

습도가 낮은 환경은 우리 몸이 감기에 걸리기 쉽게 만든다. 일교차가 큰 가을과 겨울에는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실내 습도는 40~60%, 온도는 20~22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공기청정기 또는 가습기를 이용하거나 젖은 수건, 빨래 등을 실내에 걸어두는 것도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때 공기청정기나 가습기의 청결한 관리는 필수다.

05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은 10배가 떨어진다고 한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옷을 한 벌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몸의 변화나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 또한, 외출 시 목도리나 장갑 등의 겨울 액세서리를 활용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마스크를 함께 착용하면 공기 중에 떠도는 감기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06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 감기에 걸리기 쉽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오메가 3은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을 하며 감기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효능을 지닌다. 주로 고등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데, 생선을 잘 먹지 못하는 경우 보충제로 먹어도 괜찮다.

# 독백

아주 오래 전 이곳은 밀림 우거진
산 속이었고 그 안쪽 깊숙한 곳
당신들 없는 곳에서 우리 종족은
걱정 없이 날씬하게 잘 살았었습니다

어느 날 인간은 나의 종족들을
하나 둘 사냥해서 잡아 먹더니
급기야는 생포해서 울타리를
치고 우리에 가두고는 돼지라 이름을 짓더니
자기네들 먹다 남은 찌꺼기로 키워서
잡아 먹기 시작했지요

날이 갈수록 인간의 욕망은 하늘을 찌르고
추잡하고 잡다한 욕심 채우자고
나를 죽여 대가리만 잘라 털을 뽑고
푸욱 삶아서는 콧구멍 귓구멍 입 등
구멍이란 모든 구멍에 저 더럽고 푸른
종이를 구겨 막아놓고 시산제니
풍어제니 진혼제니 개업식이니 하면서
온갖 제단에 올려 놓고 절까지 해 대더니
뼈만 남기고 다 잘라 먹었습니다

당신들의 꿈 속에서 혹은 살아가면서
살 찌워 키운 나를 또 근거도 없는
복의 상징이라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내 깔끔한 성격을 더럽다느니 지저분하다느니
할 때는 언제고 뭐 복이라고요?

당신들의 욕망때문에 망가진 돼지 같은
내 모습은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내참! 돼야지 라니요
그래도 술술 잘 풀리는 해 돼야지 요
아프지 않고 복 터지는 해 돼야지 요 P황철원

## 음주운전 처벌 강화!

2019년부터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술 한 잔인데 뭐 어때~"하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절대 안 괜찮습니다. 성인 남성(70kg 기준)의 경우,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시더라도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되며, 소주 세 잔 정도를 마시면 면허가 취소 될 수도 있으니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 | 현행 | 개정 |
|---|---|---|
| 면허 정지 기준 | 0.05 ~ 0.10 % | 0.03 ~ 0.08 % |
| 면허 취소 기준 | 0.10 % | 0.08 % |
| 상습운전자 가중처벌 |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 측정 거부 시 법정 최고형량 | 징역 : 3년 이하<br>벌금 : 1,000만원 | 징역 : 5년 이하<br>벌금 : 2,000만원 |
| 면허 재취득 기한 | 2회 이하 – 1년<br>3회 이상 – 3년 | 1회 – 2년<br>2회 – 3년 |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연장!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됩니다. 또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노후 차량,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운행 제한!

2019년 2월 15일 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정책 시행 전 미리 내 차가 규제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자신의 차량이 5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의료비 세액공제!

앞으로 실손 의료 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들이 실손 보험금을 지급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자료는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반영될 예정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최대 3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확대!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량용 소화기를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의무 장착하게끔 변경됩니다. 사실상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며, 이미 운행 중인 자동차는 차량의 소유주가 구매해 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겉면에 '자동차 겸용'이란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 확대!

기존에는 소득 수준 하위 90%에게만 지원되던 아동 수당이 1월부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또 기존에는 만 6살 미만의 아동까지만 수당이 지급되었지만 9월부터는 만 9살 미만 아동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된다고 하네요! 금액은 기존에 지급되던 10만원 그대로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

2019년의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것이라고 하네요.

# 2019년 달라지는 법!

**새해가 되면서 법에도 이런 저런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아쉬울 수도 있는, 알아두면 좋을
우리 생활에 밀접한 내용들을 쏙! 쏙! 골라봤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 “제 딸을 살해한 놈들을 15년 후에 죽여주세요”

팩컴 가족 여러분은 추리소설 좋아하시나요? 요 근래에 제가 재미있게 읽은 추리소설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입니다. 이 소설은 일본의 소설작가 야쿠마루 가쿠가 지은 추리소설로 흥미로운 주제와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인해 개인적으로 읽는 내내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책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자극적인 소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인공에 대해,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되고, 중간에 예상치 못한 반전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읽히기 때문에 평소 책을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재미있게 끝까지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평소 미스터리, 추리소설을 좋아하시거나 사회 고발적인 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 주인공 무카이는 현재 공동 경영자인 오치아이와 칵테일 바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시절 어느 한 칵테일 바에서 손님과 직원 관계로 만난 두 사람은 동업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한 칵테일 바는 14년째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무카이는 이전에는 꿈꿀 수 없던 행복한 가정까지 이루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카이는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고, 평탄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 “그들이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무카이에게는 많은 비밀과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

15년 전, 야쿠자에게 쫓기며 생활하던 무카이는 우연한 기회로 길에서 만난 노부코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며 노부코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되는데.. 바로 노부코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다는 것과 그 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끔찍한 고통을 받고 살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말기 암 환자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다.

딸을 먼저 보낸 후 매일 괴로운 하루를 보내던 노부코는 무카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된다. “전 재산을 줄 테니, 그 범인들이 출소했을 때 죽여주세요.”

사형을 받을 줄만 알았던, 딸을 죽인 범인 2명은 징역을 선고 받았으니 언젠가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될 테고, 그 범인들이 출소한 후에 본인을 대신하여 복수를 해 주길 바라는 것이었다.

무카이는 고민이 되었지만, 당장의 목숨을 위협받는 상태였던 데다가 범인들이 출소한 후에는 현재 말기 암 환자인 노부코가 세상을 떠난 뒤일 거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 약속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라 여기며 제안을 수락하게 된다. 그리하여 약속의 대가로 받은 노부코의 재산으로 성형을 하여 얼굴을 바꾸고 불법으로 호적을 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무카이.

그렇게 지난 15년 간 잊고 지냈던 약속이 어느 날 갑작스레 무카이에게 찾아 온 것이다.

누군가의 장난이라 치부하며 무시할수록 편지의 압박은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하며 계속 되고, 결국 무카이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범인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박다솜

# 하루에 커피 몇 잔?
## 카페인 중독 자가진단

혹시 다들 커피 좋아하시나요? 바쁜 일상을 보내는 팩컴인 분들 중에도 아마 커피를 마시며 피곤함을 떨치고 정신을 깨우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성분은 우리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데 혹시 카페인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카페인을 필요 이상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 중독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부분 자신의 이런 증상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 한다고 하네요. 또 커피를 전혀 드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안심 금물! 생각보다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탄산음료, 홍차, 녹차,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우리가 평소에 먹는 많은 식품 안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지만,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는 카페인!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 효 능 | 부 작 용 |
|---|---|
| – 중추신경계와 신진대사에 자극을 주어 피로를 줄여주고 정신을 맑게 해줌<br>– 운동하기 30분 전에 섭취 시 체지방 분해 효과 상승 | – 두통<br>– 심장의 두근거림, 손 떨림<br>– 불면증<br>– 속 쓰림, 구토증세 |

### 카페인 중독 자가진단

- ☑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하루에 4잔 이상 마신다.
- ☑ 카페인 미 섭취 시 신경이 예민해진다.
- ☐ 속이 쓰리고 수면 장애가 있지만 커피는 줄일 수 없다.
- ☐ 물이나 카페인이 없는 음료는 거의 마시지 않는다.
- ☐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자주 변덕을 부린다.
- ☐ 야근을 할 때 에너지 음료나 커피가 꼭 필요하다.
- ☐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규칙하게 뛴다.
- ☐ 카페인을 섭취해야 지치지 않는 것 같다.

위 항목 중 **5개 이상 증상이 있다면 카페인 중독을 의심**해야 하며, 카페인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카페인 1일 섭취 권장량**

성 인 : 400mg 이하
임산부 : 300mg 이하
어린이 : 체중 1kg 당 2.5mg 이하

김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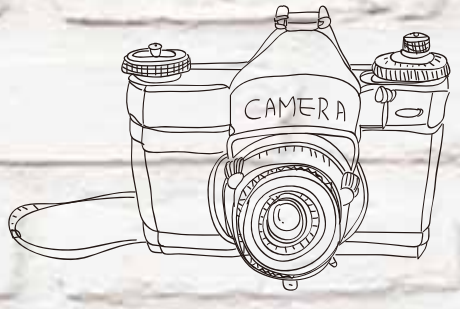
### 카페인 없는 차(茶)

· 히비스커스 : 최근 들어 인기를 얻고 있는 히비스커스는 다이어트는 물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카테킨 성분이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데다,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 루이보스 :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즐겨 마시던 루이보스차는 카페인이 없는 대표적인 차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차인데요, 철과 칼슘 등 미네랄이 풍부하며 카페인이 전혀 없어 임산부들이 즐겨 마시는 차로 유명합니다.

· 우엉차 :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 있는 우엉차는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차입니다. 노화방지, 독소 배출, 변비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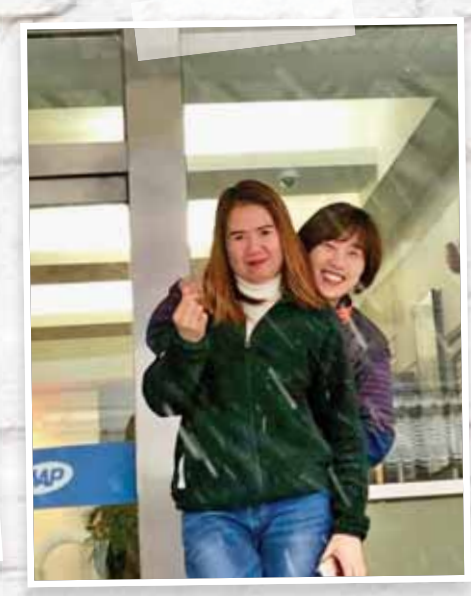
· 검은콩차 :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검은콩차는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며 빈혈 예방에도 좋은 차입니다. 검정콩에 있는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성분은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찰칵소리

E semii@gopacom.com

재밌고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다면 언제든 보내 주세요!



# PACOM NEWS

## 팩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식

지난 10월 16일 화요일, 팩컴그룹(팩컴코리아㈜, 팩컴에이에이피㈜, 북메이크㈜) 창립 19주년을 맞이하여 임직원 전체 기념식이 5층 식당에서 진행되었다. "지금껏 저생산성 및 저효율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그리고 인쇄업계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과감히 부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성장해 가는 성년 팩컴으로써 패러다임의 전환→일하는 방식의 전환→생산성의 혁신을 이루자"는 김경수 대표이사의 기념사가 있었으며, 도전팀의 김철성 부장 외 다수가 창립기념 최우수사원 및 우수사원상을 수상하였다.

## 창립 19주년 기념 야유회

지난 10월 20일 토요일, 회사 전 직원이 모처럼 나들이를 나섰다. 180여 명의 직원들은 군포공장 앞마당에 준비되어 있는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그리 멀지 않은 곤지암 화담숲으로 떠났다. 낙엽이 떨어지는 적기에 붉은 가을의 낙엽을 원 없이 구경하고, 사진 미션 수행을 하는 등 가을을 만끽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경찰의 날 최숙 대표이사 군포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지난 10월 25일 목요일은 제73주년 경찰의 날이었다. 이 날 군포경찰서 대강당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최숙 대표이사는, 의경의 어머니 역으로써 군포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 군포 보건소 주관 금연클리닉 참가

팩컴에이에이피㈜는 개인 건강 관리 차원에서 군포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금연 이동 클리닉에 참여하게 되었다. 11월 6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직원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안준 과장, 박종천 대리, 차정석 사원, 김영수 대리가 6주 간의 클리닉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보게 되었다. 덧붙여 이정근 차장과 임성운 부장 등이 곧 이들과 함께하리라 믿고 있다.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12월 3일 월요일에 진행된 월례조회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실시되었다. 올해 법정교육으로 처음 지정된 이 교육은 한국기업교육개발원 이지영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해당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및 포괄적인 장애인의 의미에 대해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이었으며, 장애 유형별 에티켓 등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둔 교육이었다.

## 2019년 사업계획 워크샵 개최 – '패러다임의 대전환'

지난 12월 14일 금요일~12월 15일 토요일에는 2018년 결산 및 2019년 계획 발표, '패러다임의 전환, 일하는 방식의 전환, 생산성 대혁신'을 주제로 한 2019년도 팩컴그룹 워크샵이 가까운 안양시 예술공원 내에 있는 블루몬테 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사무직은 전 직원, AAP는 생산직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 총 60여 명 정도의 대거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다가오는 2019년을 대비한 팩컴의 패러다임 전환과 그 구체적 방안 등을 주제로 익일 오후까지도 임원진과 함께 열띤 논의를 하였다.

# PACOM NEWS

### 도봉산, 수락산 다녀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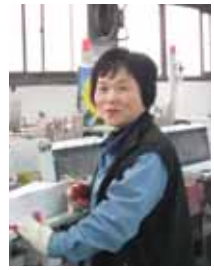
산이조아 사내 등산 동호회에서는 친목 도모를 위해 매월 1회 이상의 활발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주말 시간을 할애하여 11월 4일 에는 도봉산을, 12월 2일에는 수락산을 등반하고 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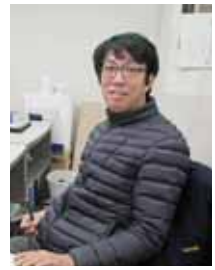
### 입사를 축하합니다

창조팀의 신미경 과장, 정비부의 김용철 사원. 팩컴의 직원이 되어 한 가족이 된 것을 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황금 돼지해 돼지띠 직원 여러분 축하합니다

2019년 기해년은 1959년 이후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의 해이다.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아 집안 살림을 늘려주므로 전통적으로 부를 상징한다고 한다. 또한 노란색은 금을 상징하므로 재물을 불러온다고 한다. 김홍철 본부장, 서형미 사원(중철), 안준 과장(중철), 박범우 과장(T/W), 심은식 과장(양장), 권미영 사원(중철), 주명희과장(생산관리), 이서현 사원(T/W), 류희전 부장(국내영업), 신규현 대리(생산관리), 조형주대리(관리), 김영환 사원(정합), 정우영 사원(재단)이 황금돼지띠에 해당된다. 돼지띠 모두 2019년 자신의 해가 되길 바란다. 이원성





Bookmake

네이버에 북메이크 를 검색하세요

# [북메이크]

## 단 한권의 책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북메이크는"대한민국 1위 인쇄 수출 기업"팩컴의 소량 인쇄 제작 서비스 브랜드로,
2008년 부터"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자가 되는 그날까지 책 1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서비스 가치를 실현하고자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팩컴코리아 www.gopacom.com | 북메이크 www.bookmake.co.kr | 문의 : 1577-3669